

#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아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킴

성경: 행 1:8, 22, 2:32-36, 3:15, 5:30-32, 8:4, 12, 13:1-4

### I. 사도행전은 하늘들에 계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 행 1:3, 9-11, 22, 2:32-36.

- A. 하늘들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 B. 주님의 승천은 그분께서 하늘들에서의 생활과 사역을 개시(開始)하신 것이었다 — 행 5:31.
  - 1. 이러한 개시는 그분을 새로운 영역인 하늘들 안으로 이끌었고, 이제 그분은 그곳에서 살며 사역하신다.
  - 2.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들에서 사시며 그곳에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 C.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신 것이었다 — 행 2:33-36, 5:31.
  - 1. 주님은 주님, 곧 만물을 소유하시는 만물의 주님이 되셨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되셨다 — 행 2:36, 10:36, 히 1:9.
    - a.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항상 주님이셨지만(눅 1:43), 사람으로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에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다.
    - b.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기름 부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리스도이셨지만(눅 2:11, 마 1:16, 16:16, 요 1:41), 그러한 분으로서 주님은 또한 승천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 2.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 — 행 5:31.
    - a.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영도자와 기원자와 창시자와 개시자이시다 — 행 3:15, 히 2:10, 12:2.
      - 1) 그분께서 영도자이신 것은 그분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 마 28:18.
      - 2)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권위를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땅을 다스리신다 — 행 17:26-27, 요 17:2.
    - b.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편까지 높이신 분은 또한 구주이시다 — 행 5:31.
      - 1) 예수님의 육체 되심은 그분을 사람이 되게 하였고, 그분의 인간 생활은 사람의 구주가 될 자격을 그분께 주었으며,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사람을 위해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였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구속의 일을 입증했으며, 그분의 높이 지심은 그분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취임시켜 구주가 되게 하였다.
      - 2) 우리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 안에 계신 분에 의해 구원받았다 — 행 3:13, 눅 24:26, 히 2:9, 엡 1:20-22, 빌 2:9-11.
        - a)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았다 — 엡 2:6.

- b) 그리스도는 보좌로부터 또한 보좌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II.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

- A.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한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며, 그들 위에서 그들의 능력과 권위가 되신다. 이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그들 위에서 그들의 힘과 능력과 권위가 되시는 삼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활동한다 — 요 20:22, 눅 24:49, 행 1:8.
- B. 사도행전은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하여 활동하고 일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 행 1:14, 13:1-4.
1. 사도행전은 몸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과 활동을 계시한다 — 행 8:1-17.
  2. 사도행전은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몸을 위해 움직이는 믿는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하고 일하는 것을 보여 주는 아름다운 그림을 담고 있다 — 행 2:44-47, 4:24, 32, 13:1-4, 16:1-5.
- C.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신성한 흐름, 곧 유일한 흐름을 보여 준다. 오직 하나의 흐름만 흐르고 있다 — 창 2:8-12, 계 22:1-2, 행 2:33.
- D. 사도행전에는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알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며, 능력과 권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동하고, 자신이 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신성한 한 흐름 안에서 몸 안에서, 몸을 위해 활동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 요 20:22, 행 1:8-11, 14, 2:1-4, 24, 32-33, 4:33.

**III.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어 그분 자신을 번식시킴으로써 그분의 충만인 교회들을 건축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신다. 이렇게 하기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전도의 일을 하도록 사람의 가르침으로 훈련받은 한 무리의 설교자들이 아니라,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증거를 지닌 한 무리의 그분의 증인들을 사용하신다 — 행 1:8.**

- A. 승천 안에서 주님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하늘들 안에서 이러한 증인들을 통해,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또한 그분의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신다. 그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그분 자신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확산하신다 — 행 1:8.
1. 증언하기 위해서는 주님이나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보고 누리는 체험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 — 행 2:40.
  2. 바울은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워졌다 — 행 26:16.
    - a. 사역자는 사역을 위한 것이고, 증인은 증언을 위한 것이다.
    - b. 사역은 주로 일, 즉 그 사역자가 하는 일과 관계되며, 증언은 인격, 즉 그 증인의 존재와 관계된다.
- B. 주님의 부활이 사도들의 증언의 초점이었다 — 행 1:22, 2:32, 3:13, 15, 26, 10:39-40, 13:33, 17:3, 18.
1. 하나님은 그분의 증인 예수님을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승천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셨다 — 눅 24:46, 엡 1:20-22, 빌 2:9-11, 행 3:13, 15, 26, 4:10, 33, 5:30-31.

2. 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전에 있던 그분의 육체 되심, 인성, 이 땅에서의 인간 생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을 가리키며, 또한 그 이후에 있는 그분의 승천, 하늘에서의 사역과 행정, 다시 오심을 가리킨다 — 행 2:23, 1:9-11.
3. 주님은 하나님이지자 부활로서,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다 — 요 1:1, 11:25, 히 7:16, 행 2:24.
  - a. 주님은 이처럼 항상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다.
  - b. 주님은 그분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다. 그러나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 계 1:18.
4. 사도들은 그들의 말에서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행동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으며, 특별히 그분의 부활의 증거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지니는 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점이자 초점이다 — 행 2:32, 4:33, 10:39-40, 17:3.

**IV.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협력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생명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 행 8:26-29, 9:10-11, 10:1-3, 9-22.**

- A. 이러한 생명 안에서의 움직임은 승천 안에 계신 주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는 것이다.
- B. 사도행전 8, 9, 10장에서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밖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움직이게 하셨다. 주님은 하늘들 안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분의 몇몇 제자들을 움직이게 하셨다.
  1. 빌립은 주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향하였다(행 8:26).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 안에서 움직인 빌립 편에서의 반응이었다.
  2. 사도행전 9장에는 하늘들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그것에 반응하는 아나니아와 사울의 놀라운 삼각관계가 있었다.
  3.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동역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 C.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아래서 이루어진 생명 안에서의 움직임으로서, 합당한 복음 전파였다 — 행 5:42, 8:4, 12, 10:36, 11:20, 13:32.
  1.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행사하시어 그분의 제자들을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게 하셨고, 제자들은 깨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늘들로부터의 사역에 반응하였다 — 행 11:1-18.
  2. 주님의 회복 안에서 복음 전파는 이와 같아야 한다. 곧 생명 안에 있는 강력한 움직임이자,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 행 1:8, 2:32-36, 5:30-32, 13:1-4, 엡 1:22-23.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사도행전의 위치**

복음서들은 완전하게 되신 구속자와 그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제시하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완전하게 되신 구속자와 그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전파를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서신서들에서는 믿는 이들을 온전하게 함과 교회들을 건축함을 볼 수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

사도행전의 위치를 보았으므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책의 주제를 보기로 하자.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

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심이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관한 책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이 번식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번식의 목적은 교회들, 곧 하나님의 왕국을 산출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는 책 전체의 요약으로 간주될 만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 사도행전의 요약 혹은 개요를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주제를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해 주고 싶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사도행전에 관한 책들 가운데 ‘번식(propag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심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번식은 예수님의 번식이 아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단지 나사렛의 한 목수의 집에 사셨던 분의 번식이 아니다. 그보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분의 번식,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본다.

### 승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활동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은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을 사셨지만 지금은 승천 안에 계신다. 주님은 승천 안에서 매우 활동적이지시다. 우리는 결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저 수동적으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땅 위의 가련한 상황을 지켜보시며 그것에 실망감을 느끼고 계실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승천한 분으로서 그분은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례는 승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활동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이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은 스테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스테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하니”. 주님은 승천 안에서 땅 위의 상황을 바라보며 서 계셨다. 마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너희 박해하는 자들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한 명, 다소의 사울을 얻어서 그를 스테반보다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이에 관해서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돌을 던지고 있고 나는 지켜보고 있다.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는 패배당할 것이다.” 스테반의 사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매우 활동적임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뜻일 뿐 아니라 또한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주 가운데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승천 안에서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주님은 매우 활동적이지시다. 지금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승천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번식을 수행하고 계신다.

오늘날 땅이 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 왜 세상에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는가? 영웅들이 땅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히틀러는 이것을 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나폴레옹은 패전한 후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비록 주 예수님은 전쟁을 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얻으셨다는 것을 시인했다. 여기에서 중점은 온 땅이 결코 패하지 않는 분의 손안에 있으며, 이분이 그분 자신의 번식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번식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안 그분의 주된 일은 싸우시는 것이 아니다.

싸우는 대신, 승천하신 주님의 일은 주로 온 땅에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피부색—검은색, 흰색, 갈색, 황색, 붉은색—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번식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승천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되었다.

### 교회들 — 하나님의 왕국 — 을 산출함

번식은 산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번식한다는 것은 산출하는 것이다. 승천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은 교회들을 산출한다. 교회들은 승천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산출물이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번식에서 나온 산출물이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5장 11절에 최초로 언급되어 있다. 그 이후로 이 책은 교회에 대해 여러 차례 말하고 있다(8:1, 3, 9:31, 11:22, 26, 12:1, 5, 13:1, 14:23, 27, 15:3-4, 22, 41, 16:5, 18:22, 20:17, 28).

승천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왕국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가르침들에 따르면, 왕국은 일시적으로 보류되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지난 뒤에 온다고 한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왕국이 함께 병행되고 있음을 본다. 사실상 교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1장 3절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그다음에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도 언급되고 있다(8:12, 14:22, 19:8, 20:25, 28:23, 31).

지금까지 말한 것에서 우리는 신약의 척추로서 서 있는 책인 사도행전의 주제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은 오늘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승천 안에서 그분 자신을 번식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다. 사도행전에 뒤이어 서신서들이 나온다. 사도행전의 연속인 서신서들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함과 건축의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행전이 차지하는 위치를 본다면 우리는 신약의 척추인 이 책이 중대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승천 안에서의 일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관한 것을 보았다(행 2:24, 3:15, 5:30, 13:33). 이제 우리는 이 번식이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주님께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그분의 번식하시는 일이 승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른바 그리스도인의 일은 대부분 승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일이 그분의 승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길 바란다. 승천은 땅 위에서 주님의 일의 본성이요 영역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일은 하늘에 속한 특성을 가져야 하며 또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번식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승천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분의 승천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승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일은 그분의 부활의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일은 천연적인 것이 아니며 타고난 사람에게 속한 그 무엇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부활 안의 신성한 생명에 속한 것이며, 그분의 승천의 분위기와 상태 안에서 수행된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그 영에 의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은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한 것이다. 그분의 번식은 어떤 책략이나 사람의 기술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번식에 관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살펴보자. 그 영에 의한 번식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경우 그 영에 의한 것은 별로 없고, 사람의 방법과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심지어 록 음악(rock music):

대중음악의 일종—역자 주)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 그 영에 의한 것, 특히 경륜적인 영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을 수행하기 위한 경륜적인 영을 볼 수 있다.

###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번식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누가 제자들인가? 이제 곧 보겠지만, 제자들은 단지 설교자들이 아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설교자들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보다 제자들은 증인들이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놀라우신 인격, 곧 영 하나님으로 인해 잉태되고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으며 땅 위에서 사시고 사역하시다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 안에서 무덤 밖으로 나와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분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다. 부활하신 이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그곳에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거기에 앉아 계시는 동안 그분은 번식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다. 제자들은 그러한 분의 증인들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 관해 “여러분이 ...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행 1:8)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그분의 증인들을 통해 승천 안에서 그분 자신을 번식하고 계신다. 이것은 교회들이 다만 사람의 손에 의해 일으켜지고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나야 하며 그분의 신성한 생명, 부활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

###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된 생명의 영역이다. 사실상 왕국은 부활하시고 번식하고 계시는 이분의 확장이다.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해 그분 자신을 번식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재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확장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확장인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사람의 왕국을 사용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단 한 사람, 아담만 있었다. 그 후 아담은 확장 곧 증가되기 시작했다. 사람의 왕국은 한 쌍의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자녀들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왕국은 한 사람에서 한 가정으로 확장되었다. 지금은 전 인류가 사람의 왕국의 일부분이다. 사람의 왕국은 단순히 아담이라는 사람의 확장인 인류이다. 이로 부터 우리는 사람의 왕국이 사람의 확장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로 체현되신 하나님의 확장이다. 그리스도의 이 확장이 교회들이다. 교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 뿌리러 오셨던 분이신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계시되어 있다. 복음서들에서 그리스도는 왕국의 씨이셨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이 씨의 번식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사도행전 안에 얼마나 많은 장들이 있는지 말할 수 있는가? 아마 당신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맞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지금도 여전히 기록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맞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수천 개의 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오늘도 한 장 정도가 더 기록되었을지 모른다. 이 기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요, 이 번식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이요 그리스도의 확장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 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주제를 암기하여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심! 여기서 세

단어, 번식과 교회들과 왕국은 동의어이다. 왕국은 교회들이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번식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제에 깊은 인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부활하신 분이시며 승천하신 분이신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번식으로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당신의 번식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당신과 함께하며, 교회들이 하나님의 왕국임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높이 올려지신 분으로서 그분은 지금 그분의 증인들인 우리를 통하여 땅 위에서 그분 자신을 번식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자.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2장, 20-26쪽)